

조선 중기 미수 허목의 전통사관의 의의와 한계

인하대 융합고고학전공 최원호

- I. 머리말
- II. 전통사학과 허목의 『동사』 저술
 - 1. 전통사학이란
 - 2. 허목의 『동사』저술의 의미
 - 3. 『동사』의 전통사학사적 위치
- III. 『동사』의 삼조선설과 계통론
 - 1. 『동사』의 편목
 - 2. 『동사』의 삼조선설
 - 3. 『동사』의 이원적 계통론과 의미
- V. 맺음말

【국문초록】

양란(兩亂)을 겪은 조선중기 사회는 관료와 유학자들이 ‘존명사대주의’를 더욱 주장하면서 ‘소중화 자존의식’으로 응결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조선중기 유교적 전통사학자들의 정통론과 상고사 인식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의 대표적 인물이 미수 허목이었다. 조선중기의 유계는 『여사제강』에서 상고사를 아예 부정하면서 고려 단대사만 저술하고, 흥여하는 『동국통감제강』에서 기자조선을 한국사의 정통의 머리로 인식하면서 단군조선을 아예 제외시켰다.

허목은 『동사』에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조선의 삼조선과 신라, 고구려, 백제를 「세가」로 배치하고 부여와 숙신씨, 삼한(마한·진한·변한)과 가락, 대가야, 예맥, 말갈(발해), 탁라 등 10국을 부용국으로 인식해 「열전」에 배치했다. 당시 유교적 전통사학의 서술방법인 강목체를 탈피해 기전체 서술을 통해 한국사를 세가와 열전으로 구분해 독자적인 천하 의식을 갖고 방외의 별국으로 인식한 것이다.

또한 그는 단군조선을 이어 북부여와 동부여, 고구려와 백제로 이어지는 혈통적 계승론인 북방계통론과 기자조선을 중심으로 마한과 신라로 이어지는 것으로 문화적 계통론인 남방계통론인 이원적 인식체계를 가졌다. 허목의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위만조선이란 삼조선 인식의 문제점과 남방계통론의 문제점을 알아봤다.

17세기 허목의 『동사』는 조선 중기의 경직된 유가적 전통사학 분위기 속에서 도가적 전통사학을 부활시키는 사학사적 위치를 갖는다. 그 흐름은 18세기 이종휘의 『동사』와 대일항쟁기 민족사학 성립에도 영향을 끼쳤다.

주제어 : 허목, 동사, 이원적 계통론, 도가적 전통사관, 유가적 전통사관

I. 머리말

조선 중기는 양란(兩亂)을 겪은 후로 조선사회가 상당한 사회적 변화를 요구받던 시기다. 지배층의 견고한 이념이었던 주자학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당쟁으로 ‘사문난적(斯文亂賊)’에 몰려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벌어졌다. 특히 17세기 중엽은 1차 예송논쟁으로 서인이 집권하던 시기로 사문난적에 몰려 목숨을 잃은 학자들이 주로 남인 출신이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윤희(1617~1680)와 박세당(1629~1703)이었다. 이 시기에 남인계열로 사상계나 정치력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 미수 허목(1595~1682)이었다.

허목은 56세에 처음 관직에 진출한 인물로 30대에 박지계 사건에 연루되어 정계 진출이 늦었다. 그는 20여 년을 유유자적한 경험으로 조선 도교사의 인물열전인 「청사열전」을 집필하기도 했다. 허목이 늦게 정계에 진출하고 66세(1660년)에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의 복상문제로 불거진 1차 예송논쟁에서 서인들의 기년설에 맞서 3년설을 주장하다 패배하여 삼척부사로 좌천된 이후 고향으로 낙향을 하게 된다. 바로 이 시기에 그가 저술한 역사서가 『동사(東事)』이다.

그동안 허목에 대한 연구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의 예학이나 문학 세계를 다루었다. 물론 『동사』를 통해 허목의 역사인식과 저술 동기에 대해 연구한 분들도 있다. 선구적인 연구자가 한영우¹⁾, 정옥자²⁾ 등이다. 그들은 허목의 역사관은 민족적 특성과 정치의 선악, 그리고 지리적 조건과 풍속 등을 헤아려 순응하는 정치를 주장한 것이라고 보았다.

논자는 선행 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통사학사의 흐름 속에서 허목의 『동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동사』를 통해 허목의 상고사 인식에서 주목할 점과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삼조선설, 북방계와 남방계의 이원적 계통성의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II. 전통사학과 허목의 『동사』 저술

1. 전통사학이란

전통사학이란 한국사 속에서 역사 편찬이 시작된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 말기까지 진행된 역사인식과 서술 체계를 말한다. 전통사학의 흐름을 보면 크게 불교사학, 유교사학, 그리고 도가사학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주류를 이룬 것은 『삼국사기』를 필두로 조선시대 대부분의 관찬사서와 중·후기부터 사적으로 편찬한 대부분의 사서들의 역사관인 유교사학이었다. 거기에 대해 『삼국유사』로 대표되는 불교사학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도가사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그 이

1) 한영우, 「허목의 고학과 역사 인식 - 동사를 중심으로」, 『한국학보』40, (1985)

2) 정옥자, 「미수 허목 연구 - 그의 문학관을 중심으로」, 『한국사론』5, (1979)

유는 무엇보다 도가사서로서 남겨진 것이 적을뿐더러 사상사 측면에서 불교와 유교 중심으로 편중되어 고유사상에 대한 소홀함이 가져 온 결과이다.

도가사학에서 말하는 ‘도가’는 중국의 도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군 이래의 고유사상으로 흔히 역사 속에서 신교, 신도, 선 등으로 불렸던 것이다. 도가 사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난랑비 서문에 등장하는 「선사」나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고기」류의 사서, 그리고 조선 세조 수서령 목록에 등장하는 「고조선비사」 「대변설」 「조대기」 「안함노원동중삼성기」 등으로 추정된다.

한국 전통사학의 흐름을 보면 고대에서 근대까지 유교사학이 주류를 이루면서 도가사학과 불교사학을 배척해왔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도가사학이 유교사학과 대결하면서 한 단계 성장시키는 밑거름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유교사학도 고려 중기에 김부식이 한 단계 성장시켰다면, 조선 후기에 안정복과 이종휘, 한치운 등에 의해 또 한 단계 높아졌다. 특히 유학자들의 역사 인식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 존화주의 탈피와 상고사 연구에 대한 심화로 나타나기도 한다.³⁾

그런 의미에서 전통사학을 바탕으로 한국사 속에서 흥망을 거듭한 모든 국가들의 계통을 정립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2. 허목의 『동사』 저술의 의미

16세기 말~17세기 초 양란(兩亂)을 겪은 조선 사회는 지배층들이 문화적 역량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생각했던 일본과 청의 물리력에 압도되면서 ‘존명사대주의’를 더욱 주장하고 오히려 ‘소중화 자존의식’으로 더욱 응결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17세기 중반부터 조선사회의 관료와 유학자들은 국가 왕조체제의 위기의식 속에서 ‘국가재조론(國家再造論)’이 대두되었다. 국가재조론은 당시 관리나 유학자들의 현실대응논리였다. 각자의 당파나 학연,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과 태도를 갖게 되었다.⁴⁾ 그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1623년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서인과 남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림세력들이었다.

바로 이 시기의 남인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미수 허목(1595~1628)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독서와 학문에 정진하였지만 32세에 박지계 사건⁵⁾으로 과거를 볼 수 없게 되자 조선 팔도를 유람하였다고 한다. 56세에 정릉참봉으로 관직에 처음 나가기 전까지 그의 이십여 년의 유유자적한 삶이 김시습을 비롯해서 그의 도맥인 정희량, 정렴, 정작, 정두, 강서, 조충남 등의 행적을 기린 「청사열전」을 쓰게 되면서 도가에 침윤하게 만든 것 같다.⁶⁾

그 후 63세 때 지평을 제수 받았지만 66세(1660년)에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의

3) 한영우, 「17세기의 반존화적 도가사학의 성장」 『한국학보』1, (1975), pp.23~25.

4) 박경철, 「우리 전통사학의 고조선사 인식-그 지성사적 접근을 위한 일시론-」, (1999), pp.34~5.

5) 『인조실록』 인조9년 9월18일 기축, “貴曰: 有許穆者, 以議禮事, 擅削朴知誠於學籍, 故知誠弟子等, 皆不赴舉云, 臣不勝驚駭。 一儒生之妄論, 至於削籍前持平, 事甚怪訝矣。” 上曰: “許穆之事, 誠極過當, 停舉宜矣。”

6) 한영우, 「허목의 古學과 역사 인식-東事を 중심으로」 『한국학보』40, (1985), PP.285~6.

복상 문제로 불거진 예송 논쟁에서 우암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서인의 1년 설[椿年說]에 맞서 윤희, 윤선도와 함께 3년 설을 주장하다 패배하여 삼척부사로 좌천되었다. 그 후 결국 68세(1662년)에 고향인 경기도 연천으로 낙향했다. 1차 예송 논쟁에서 패배한 후 학문에 더욱 매진하여 예학에 관한 논리를 강화했다. 그 후 처사적인 삶을 접고 현실 정치에 적극 관심을 가지면서 서인들과 달리 고례(古禮)인 ‘의례(儀禮)’나 ‘주례(周禮)’에 근거한 예학을 연구했다. 이 당시의 그의 학문의 축적이 바로 『경설(經說)』과 『동사(東事)』의 서술이었다.⁷⁾

80세(1674년)에 2차 예송논쟁에서 승리한 허목은 권력교체에 성공해 숙종 초에 우의정이 되었다. 83세(1677년)에 경기도 연천에 낙향했을 때 저술했던 「경설」과 『동사』를 숙종에게 바쳤다. 경학(經學)과 사학(史學)의 학문적 체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였다. 『동사』가 편찬된 것은 73세가 되던 현종 8년(1667)이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숙종 3년(1677)에 『경설』과 함께 『동사』를 진상한 이유는 군비확장을 통한 서인들의 복벌론에 반대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설득력 제고를 위한 행동이었다.

동방의 구역은 예부터 후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 것이 크고 작은 것을 합하여 22가 되는 방외의 별국입니다. (중략) 산천이 구별되고, 풍기가 같지 않으며, 성음·요속·기욕도 각각 다릅니다.⁸⁾

허목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기후와 말, 풍속과 취미 등이 다른 방외의 별국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한국사의 독립성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리적 조건과 풍속, 백성들의 기호 등 문화적 차이를 강조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중국과 다른 정치적 특색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들이 나라 다스린 것을 논해 보면, 단군은 순후(淳厚)하게 다스리고, 기자는 팔조(八條)로 가르쳐 각각 1천 년씩을 가고, 위만은 병력(兵力)의 위엄과 재물(財物)을 가지고 수천 리 땅을 개척했으나 갑자기 얻었다가 갑자기 망했습니다. 숙신씨는 호시(楛矢)와 석노(石弩)로 역사에 전해지고, 고구려는 강대하게 다스려 나라를 7백 년이나 전했고, 백제는 강포하고 전쟁을 좋아하여 전사한 임금이 넷이나 되고 또한 나라가 먼저 망했으며, 신라는 충후하게 다스려 인의의 나라로 불리우며 58대나 전해 왔습니다. 대개 각 나라들의 정치와 선악·치란(治亂)·흥망의 이유 중에 후세에 권계(勸戒)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만이 아닙니다.⁹⁾

7) 박해현, 「허목의 ‘동사’ 저술과 그 동기」 『한국사상과 문화』 제21집, (2003), PP.284~9.

8) 『숙종실록』 3년 1월 12일 기축, “蓋東方九域, 上古立后建國, 大小二十二, 爲方外別國。其書荒怪不信, 其傳後世者, 僅十一二。山川區別, 風氣不同, 其聲音謠俗嗜慾各異。”

9) 『숙종실록』 숙종3년 1월 기사 “論其治則檀君淳厖之治, 箕子八條之教, 各千年。衛滿以兵威財物, 拓地數千里, 暴得暴亡。肅愼氏楛矢、石弩, 傳於史氏。高句麗強大之治, 傳國七百; 百濟強暴好戰, 其君戰死者四, 國且先亡; 新羅忠厚之治, 稱仁義之邦, 傳五十八世。蓋列國之政, 善惡治亂興亡之故, 爲後世勸戒者非一。”

위 글은 허목이 숙종에게 올린 간략한 상소문의 글이다. 그는 정치를 통해 흥망을 거듭한 나라를 사례로 들고 있다. 단군과 기자, 신라의 순후하고, 인의로운 정치가 각각 1천 년의 역사를 유지케 했으나 위만과 백제는 전쟁을 좋아하여 갑자기 흥한 뒤에 망하거나 임금이 넷이나 전사하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그의 정치적 신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전쟁으로 부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당시 양란을 겪은 후 존명사대 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북벌론이 대두되는 국가 위기론 속에서 나온 그의 현실대응논리가 반영된 역사서가 바로 『동사』였다.

3. 『동사』의 전통사학사적 위치

전통사학사의 연구대상은 첫째는 편찬자의 역사인식정신인 편찬정신과 둘째는 사서의 형식과 구성 체제, 그리고 셋째는 사서에 반영된 국가계승체계이다.¹⁰⁾

허목은 양란 이후 주자학이 교조주의적으로 흘러가던 조선 중기의 인물로 17세기 효종~숙종 연간에 정치적 영향력이 컸던 인물이다. 그의 『동사』 저술이 조선 중·후기 전통사학사에서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17세기에 편찬된 대표적 사찬사서들이 있다. 오운의 『동사찬요』, 유계의 『여사제강』, 홍여하의 『휘찬여사』와 『동국통감제강』등이다. 이 당시의 유교적 전통사학은 주자사학을 모방한 강목체¹¹⁾와 정통론의 수립을 위주로 하는 역사학 풍조가 발전하였다. 특히 정통론은 기사송배 및 존화사상과 상호표리관계를 갖고 있는데 위의 사서들은 모두 그러한 사풍을 따른 사서들이다.¹²⁾

정통론은 중화와 이적을 구별해서 정통과 윤통을 가르는 것인데 명(대중화)이 청(이적)에 멸망한 이후 천하에는 소중화(조선)만 남게 되어 한국사에 정통론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중화문명의 전수자이며 주나라(중화)로부터 합법적으로 봉함을 받은 군주인 기자에 대한 숭배가 강화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었다. 조선 중·후기에 기자조선을 한국사의 정통의 시작으로 보고 기자조선의 후예가 세운 마한을 정통계승자로 인정하는 흐름이 등장한 것은 이런 까닭이다.¹³⁾

17세기에 쓰인 몇 가지 사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유계는 『여사제강』에서 고려 단대사만을 기록했다. “우리 동방은 기자 이후 문자가 있었으나 재적(載籍)이 무징(無徵)하였고, 삼국분쟁에 각기 문사(文史)가 있었으나 역시 부전함이 많았다”는 이

10) 한영우,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1), p.275

11) 이만열, 「17·18세기의 사서와 고대사인식」 『한국의 역사인식』 下, (창작과 비평사), (1976), P.336 ; 李萬烈은 강목체 역사서술에 대하여 “동양 특히 중국의 역사기술 체제로서는, 사마천으로부터 시작되는 『사기』의 기전체(紀傳體)와 사마광의 『자치통감』에 나타난 편년체(編年體) 및 원추(袁樞)의 『통감 기사본말(通鑑紀事本末)』에 보이는 기사본말체가 있으며, 강목체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었다고 한다. 강목체는 단지 기술 형식상으로 보면, 편년체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거기에 기사본말체적인 형식과 내용을 약간 가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강목체는 조잡한 기술 체제이지만 대의명분이나 정통론 등 사상성을 강조하는 역사 기술로서는 가장 적합하고,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전제 되어야만 그 서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고 했다.

12) 한영우, 「17세기 반존화적 도가사학의 성장-북애의 규원사화에 대하여」 『한국학보』1, (1975), p.51.

13) 한영우, 위 논문, pp.51~2.

유를 들었다. 전조의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전대의 『고려사』, 『동국통감』, 그리고 『동사찬요』 등에 여러 모순점들이 있어서 강(綱)·목(目)·분주(分注)로 분류하여 그의 판단에 의해 사실을 분류·포편·증손하였다. 그의 역사서술방식이 주자의 『자치통감강목』을 본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계는 유교적 합리성에 충실해서 참위(讖緯)·불경(不經)·황탄(荒誕)·비속지설(鄙俗之說)은 모두 지워버렸다. 『여사제강』은 송시열과 숙종 재위시 영의정 김수항의 노력으로 숙종이 어람하고 노론 집권 이후에는 고려사를 조감하는 표준사서가 되었다고 한다.¹⁴⁾ 유계에게 상고사는 단지 실증할 수 없는 불합리하고 황탄한 기록으로 김부식의 『삼국사기』기록도 황탄하여 신빙할 수 없고 세대가 요원하여 국정연혁과 인물의 출처를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홍여하의 『휘찬여사』와 『동국통감제강』도 비슷하다. 두 책은 춘추대의에 입각해 정통론을 주장하고 있다. 안정복이 쓴 『동국통감제강』의 서문을 보면 홍여하는 ‘기자를 정통지수(正統之首)로 보고 마한이 이를 계승하였으며 마한멸망 전에 삼국의 임금은 모두 신하의 예로 칭왕(稱王)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 또한 홍여하는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비판하면서 선군의 흥년(薨年)에 개원(改元)한 것은 춘추의 대의를 잃은 것으로 보면서 삼국시조의 탄생설화도 유교적 합리성에 입각해 비판했다.¹⁵⁾ 결정적으로 홍여하는 단군조선을 아예 역사계통에서 뺐다.

이런 역사 풍조에서 허목이 지은 『동사』에는 몇 가지 특징이 보인다. 허목도 상고사 편목에서 「기자세가」와 「위만세가」를 편재했지만 서문에서 “신시와 단군의 시대는 중국의 제곡, 당요, 우순의 시대로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비로소 생겼다”고 보면서 정치의 시작을 환웅의 신시로까지 소급해서 보았다. 또한 교화지주로서의 기자에 대해 질박하고 순후한 정치를 한 단군을 대비해서 문화적으로 뒤쳐지지 않았던 역사의 혈통적 시조로 인식했다. 주자학이 교조주의적 방향으로 흘러가던 시대에 고학(古學)¹⁶⁾의 한 봉우리를 차지한 허목은 신화의 세계는 황당무계한 환상의 세계가 아니라 신성한 권위를 지닌 제왕들이 가장 순박한 정치를 펼친 이상사회로 본 것이다.

무엇보다 「단군세가」에서 단군조선-북부여-동부여-고구려-백제로 이어지는 혈통적 계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기자세가」에서 기자조선-마한-신라로 이어지는 남방 계통론을 말하면서 이원적 계통론을 주장하지만 당시 유교적 전통사학과 비교하면 상당히 진척된 역사인식론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환웅의 신시와 단군을 강조하면서 혈통적 계통론을 주장해 당시 유교적 전통사학자들이 주장하는 존화양이(尊華攘夷)의 세계관을 무색하게 한다.

17세기 허목의 역사인식은 유교적 전통사학론을 탈피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18세기 이후 이종휘의 『동사』를 통해 한층 주체적 역사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종휘의 『동사』에서는 「신사지」를 따로 편재해 환웅의 신시시대를 더욱 주목하고 있다. 물론 당시 한치윤은 『해동역사』를 저술했는데 책의 체제 면에서 눈여겨볼

14) 이만열, 「17~8세기의 사서와 고대사인식」 『한국사연구』10, (1976), pp.100~1.

15) 이만열, 위 논문, pp.102~5.

16) 古學은 허목이 직접 붙인 이름으로 주자의 주석을 통해 유학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유교 경전을 직접 연구해서 이해하는 원시유학의 형태를 말한다.

부분이 있다. 책의 첫 머리에 중국문헌에 보이는 동이관련 기사를 모아 「동이총기」를 실었는데 유교적 정통론을 탈피하려는 외형적 시도가 보인다.¹⁷⁾

허목의 도가사학적 전통사학관은 이후 민족주의 역사학 성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조선 말기의 안종화의 『동사절요』(1904)¹⁸⁾와 일제 초기 대종교 계통의 민족주의 역사학자였던 김교헌의 『신단실기』¹⁹⁾에서 허목의 『동사』가 자주 인용된다. 신채호는 『조선상고사』 총론에서 “선조·인조 이후에는 유교계에 철학·문학의 거자(巨子)가 배출되었는데, 사계(史界)도 차차 진보되어 허목의 단군·신라 등 각(各) 세기(世記)가 너무 간략하나 왕왕 독득(獨得)의 견(見)이 있다.”고 하면서 허목의 역사관이 매우 독창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허목의 전통사학관이 근대 민족주의 사관에 영향을 준 것은 주자학의 존화양이를 배격하고, 민족 자각적인 의식을 강조한 데 이유가 있는 것이다.²⁰⁾

Ⅲ. 『동사』의 삼조선설과 계통론

1. 『동사』의 편목

『동사』는 허목의 문집인 『기언(記言)』에 수록된 역사서인데, 서(序)와 세가(世家)·열전(列傳)·지승(地乘)·외기(外記)로 구성된 기전체 형식의 책이다. 기전체 형식이지만 본기와 세가, 열전이 아니라 세가와 열전의 형식만 취했다. 그리고 열전에 인물이 아닌 부용국인 여러 소국의 역사를 쓰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지(志)에 해당하는 지승(地乘)이 있다. 17세기 당시의 주된 역사서술방식이었던 주자의 강목법을 탈피해 왕권강화를 통한 계급질서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사기』의 기전체 방식을 원용(援用)한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허목의 문집인 『기언』에서 외편인 32권에서 36권까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사』의 편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문집	내외편	제목	세가	열전
기언	외편 32	동사 1	단군세가	부여열전·속신씨열전
			기자세가	
			위만세가	사군이부·삼한열전(마한변한진한)

17) 한영우, 「17세기 반존화적 도가사학의 성장-북애의 규원사화에 대하여」 『한국학보』1, (1975), pp.52~3.

18) 조선 고종 때의 문인으로 『동사절요』는 단군을 최초의 성인으로 인식하고,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1878년에 『동사절요』의 토대가 된 『동사취요』를 저술했는데 이 책은 허목의 『동사』를 많이 참고하여 환인·신시·단군·부루에 관해 부연해서 서술하고 있다.

19) 대종교의 2대 교주인 김교헌이 편찬한 역사서로 단군에 관한 사적과 신교 등 고대사상에 관해 정리한 역사서로 민족사학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 책이다.

20) 한영우, 「허목의 古學과 역사인식-『東事』를 중심으로」 『한국학보』11집, (1985), pp.84~7.

	외편 33	동사 2	신라세가 상	가락열전·대가야열전
			신라세가 중	
			신라세가 하	
	외편 34	동사 3	고구려세가 상	예맥열전·말갈열전·탁라열전
			고구려세가 하	
			백제세가	
	외편 35	동사 4	지승	
	외편 36	동사 5	흑치열전	

표 1 『동사』 편목 표

위 표에서 보듯이 허목이 『동사』에서 세가로 이름붙인 것은 단군·기자·위만·신라·고구려·백제 등 여섯 나라이다. 열전으로 분류해 서술한 나라는 부여·속신씨·삼한(마한·진한·변한)·가락·대가야·예맥·말갈(발해)·탁라(탐라) 등 10국이며, 흑치열전(일본)은 외기로써 독립시켜 배치했다. 그리고 지(志)에 해당하는 지승(地乘)이 있다. 그가 세가와 열전을 구분한 기준은 나라의 크기였다. 서문에서 “위로 단군으로부터 신라 말세에 이르기까지 대국은 여섯이요, 부용국인 소국은 열아홉이다.”²¹⁾라고 적고 있다. 표에는 부용국이 10국으로 정리되었지만 세가 본문에 보면 부여도 북부여와 동부여, 진의 망명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진한(秦韓) 등 부용국으로 등장하는 소국의 숫자는 더 많다.

2. 『동사』의 삼조선설

1) 허목의 역사인식

『동사』를 보면 허목의 역사인식이 상당히 종합적이다. 유학자로서 기본적으로 『삼국사기』의 형식과 내용을 참고했다. 기전체 형식의 편찬 방식을 원용하고 신라와 고구려, 백제세가의 내용은 『삼국사기』와 큰 차이가 없다. 또한 『제왕운기』에서 처음 언급한 기자조선을 「기자세가」로 편찬한 것을 보면 참고한 것이 분명하다.²²⁾ 불교사관인 『삼국유사』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서 빠진 고조선, 북부여와 동부여, 그리고 가야와 말갈·발해의 역사를 별도 목차로 구성했는데, 『동사』도 『삼국유사』와 같이 단군조선, 북부여와 동부여, 가락과 말갈(발해)의 역사를 열전 형식으로 쓰고 있다. 즉 허목은 전조부터 내려온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그리고 『제왕운기』등의 역사관을 계승하면서 주체적인 사관으로 역사서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전기의 관찬사서와 유학자들의 사찬사서의 유교사관 틀

21) 『동사』 序 “上自檀君。下至新羅末世。大國六。附庸諸小國十餘九域”；『속종실록』에 실린 허목의 차자에는 방외별국으로 크고 작은 22개의 나라가 있었다고 적고 있다.

22) 허목은 1차 예송논쟁에서 패배한 이후 삼척부사로 좌천된 적이 있다. 그 시기에 삼척 두타산인이었던 이승휴의 일화 및 저서를 참고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도덕적 합리주의를 내세우는 모습도 보인다.

허목의 역사관에서 특기할 내용은 당시 주류 역사서술방식이었던 강목법을 벗어나 기전체 형식의 편목 배치이다. 『사기』 이래 중국 정사에서 주변 여러 소국들을 제후국으로 취급하여 외이열전(外夷列傳)으로 서술했는데, 우리나라 사서에서 그런 사례는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동사』에서 세가와 열전을 설정한 것은 한국사에 있어서도 천자와 제후 사이에 맺어지는 것과 같은 주종관계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작용한 듯하다. 일본을 외기열전으로 넣은 것은 더욱 그러한 의도를 엿보게 한다. 우리나라를 천자적 지위에 비견되는 대국을 「본기」라 하지 않고 「세가」라고 한 것은 중국 천자와의 지위 격차를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여섯 대국이 10여개의 작은 나라를 부용국으로 거느렸다는 인식은 중국의 천자에 버금가는 천하 질서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동사』의 상고사 서술에 대해 단군, 기자, 위만세가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다.

2) 삼조선설

허목의 고조선사 인식은 『동사』 편목을 보면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조선으로 구성된 삼조선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허목은 전조에서 전해지던 사서들을 종합적으로 수용한 듯하다. 고조선사에 대해 삼조선으로 인식하고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중심으로 한 이원적 계통론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를 함께 수용한 것 같다. 『삼국유사』 「고조선」에도 기자조선에 관한 언급이 등장하지만 기자조선을 따로 편목하지 않았다. 기자의 동래로 단군이 도읍을 장당경으로 옮겨간 이후에 다시 아사달로 돌아와 1908년을 이은 것으로 나온다. 또한 일연은 『삼국유사』에 ‘기자조선’조를 배치하지 않았다. ‘기자조선’을 처음 언급한 것은 『제왕운기』이다.

따라서 고조선사에 대한 인식 체계의 두 흐름을 살펴보면 첫째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왕검조선(1908년)-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계통이고, 두 번째는 『제왕운기』에 나타나는 ‘단군조선(1028년)-기자조선(928년)-위만조선’으로 이어지는 계통이다. 그런데 허목은 고려시대의 두 사서인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의 고조선사 인식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위만조선은 고조선사의 정통맥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동사』에서 「단군세가」, 「기자세가」와 함께 「위만세가」를 나란히 배치했지만 「위만세가」는 간단하게 창엽과 멸망의 과정만 적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사론을 적고 있다. 구체적으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조선에 대한 역사관을 들여다보겠다.

① 단군조선

허목의 동사 편목을 보면 상고사와 고대사의 시대 구분에 특이한 점이 있다. 고대

23) 한영우, 위의 논문, P.67.

사는 나라 이름으로 구분하여 신라세가, 고구려세가, 백제세가로 분류했고 상고사는 초대 통치자의 이름을 붙여 단군세가, 기자세가, 위만세가로 구분했다. 그 중에서 상고사인 단군세가와 기자세가, 그리고 위만세가는 흔히 삼조선으로 이해되는 내용이다.

단군세가는 단군이 통치하던 조선의 역사를 서술한 내용이다. 그는 “단군 때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국호를 정했기 때문에 「단군세가」를 짓는다.”²⁴⁾고 했다. 그런데 서문에서 “신시와 단군의 시대는 중국으로 보면 제곡, 당요, 우순의 시대에 해당한다.”²⁵⁾고 하면서 중국 역사의 제곡고신²⁶⁾의 시대와 비교하여 ‘신시’시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단군세가」의 본문 첫 머리에서 상고시대에 우리 민족[九夷]이 살던 초기에 “환인씨가 있었고, 환인이 신시를 낳았다. 신시가 처음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가르치니, 백성들이 그에게 귀의했다. 신시가 단군을 낳았다”²⁷⁾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상고사의 국통을 환인씨, 신시, 단군으로 보면서 신시부터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비로소 생겨 백성을 다스리는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백성의 숫자가 적고 질박하고 순후한 시대여서 국가로 성립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신시’는 ‘환웅’을 일컫는 것으로 환웅을 신시로 표기한 사서는 『동사』와 거의 같은 시기에 편찬된 『규원사화』뿐이다. 『규원사화』는 흔히 도가사서²⁸⁾로 평가되는데 그 곳에서는 ‘신시씨’로 언급하고 있다.

허목이 환웅을 신시로 표현한 것은 그의 젊은 시절의 행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어려서부터 학문과 독서에 정진했지만 56세에 처음 관직에 진출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관직생활은 63세에 지평에 제수되면서이다. 관직에 등용되기 전에 그의 문집인 『기연』 권11에 조선시대 도가 인물로 평가되는 김시습을 비롯한 정림, 정작, 정두, 강서 등의 행적을 정리한 「청사열전」 4편을 지었다. 그의 도가적 성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단군세가는 앞부분에서 ‘조선’이란 국호의 유래와 의미, 도읍지를 말한다.²⁹⁾ 그 뒤부터는 단군이 세운 조선이 어떤 나라로 이어졌는지 국통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단군의 치세를 도당 즉위 25년부터 중국 상나라 무정 8년까지 1048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단군의 치세기간을 1048년으로 본 것은 15세기에 권람이 쓴 『응제시주』에 보인다. 권람은 조부인 권근이 쓴 『응제시』에 주석을 붙이면서 이왕에 알려진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뿐만 아니라 『고기』를 인용했는데 당시에 전통사관에 입각한 고기류(古記類)의 사서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전해지던 대표적 사서인 『제왕운기』에서는 단군 조선의 치세기간을 1028년으로 보고 있으며 『삼

24) 『東事』序 “至檀君。始建國立號。作檀君世家。”

25) 『동사』序 “神市，檀君之世。當帝嚳唐虞之際。”

26) 『사기』 「오제본기」의 세 번째 인물로 제곡고신을 말한다. 제곡고신은 당요의 아버지로 단군이 세운 조선시대보다 앞선 인물이다. 허목은 제곡고신에 해당하는 시대로 신시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27) 『동사』 「단군세가」 “上古九夷之初。有桓因氏。桓因生神市。始教生民之治。民歸之。神市生檀君。”

28) 도가사서는 흔히 유가사서, 불가사서와 구분 짓기 위해 쓰는 일반적인 표현이다. 유가사서의 대표적인 것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이며 불가사서는 일연의 『삼국유사』이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되는 ‘도가’는 중국의 노장사상의 도가가 아니라 우리 고유사상으로 ‘도가’를 말한다.

29) 『동사』 「단군세가」 “朝鮮者。東表日出之名。或曰鮮汕也。其國有汕水。故曰朝鮮。都平壤。”

국유사』에서는 1908세로 보고 있다. 치세기간의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응제시주』와 『동사』의 1048년 설과 관련해 주목할 내용이 고려 말의 행촌 이암이 쓴 것으로 알려진 『단군세기』³⁰⁾이다.

『단군세기』는 단군조선의 도읍지를 중심으로 3왕조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아사달을 중심으로 한 제1왕조의 치세기간을 1048년으로 보고 있다. 그 시기는 초대 단군왕검으로부터 21세 소태단군까지의 역년이다. 이런 기록을 놓고 볼 때 허목이 『동사』를 집필할 때 권람이 참고했던 ‘고기류’의 사서로 분류되는 『단군세기』와 같은 사서를 참고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삼국유사』의 1908세 역년은 『단군세기』에서 아사달을 중심으로 한 제1왕조[1048년]와 백악산 아사달[860년]을 중심으로 한 제2왕조의 역년을 합한 기간이다. 『삼국유사』 「고조선」도 「고기」를 인용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병섭도 『삼국유사』의 ‘단군 1500년과 기자 1천년’은 단군조선 연대 산정에서 단일 계보(단군 이후 기자)로 처리하면 모순이 있다고 했다. 『삼국유사』고조선 조를 단군사화로 해석하면 단군조선은 1908년이고 기자조선은 928년이다. 이 중에서 기자부분은 『제왕운기』, 『응제시주』와 일치한다. 전체기간을 합하여 연대를 산정하면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이 동시에 존재하여 병립한다고 주장한 것이다.³¹⁾ 만일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연대기적인 계통론으로 이해하면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역년만 2836년이 된다.

위와 같은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연대기적 계통성 문제 위에서 「단군세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국통 계승에 관한 기록이다. “단군씨의 후손에 해부루가 있고, 해부루의 후손에 금와가 있고, 금와의 후손에 주몽과 온조가 있어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가 되었으니, 모두 단군씨에게 뿌리를 둔 것이다.”³²⁾라고 하여 북부여와 동부여,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는 단군조선에 뿌리를 둔 역사계승성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조선 중기의 다른 사서들이 기자-마한으로 이어지는 계통성을 강조한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또한 「단군세기」에는 부여와 숙신씨의 지리와 문화를 적고 있는데 세가의 본문에서 적고 있는 것은 단군조선의 거수국 중에 중요한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허목의 단군조선에 대한 인식은 조선 중기 유학자들의 전통사관과는 달리 ‘이풍(夷風)’으로 천시해 온 단군조선의 문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³³⁾ 후에 숙종에게 『동사』를 올리면서 ‘단군의 순후한 다스림’과 ‘기자의 팔조의 가르침’³⁴⁾을 함께 강조한 모습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단군치세기간을 1048년으로 보고 단군이 비서갑녀와 결혼해 부루를 낳고, 부루가 도산에서 우를 조건했다는 내용은 『제왕운기』와 『응제시주』에만 보이는 것으로 그가 유학자로서 명분을 내세우는 인물로도 확인된다. 그렇지만 그는 ‘고기류’의 도가사서를 참고해서 종래의 중화와 이적을 엄격하

30) 계연수 편찬, 안경전 번역 『환단고기』, 상생출판, (2012). 참고

31) 박병섭·박병훈, 「단군조선과 삼조선설」 『단군학연구』 제17호, p.3.

32) 『동사』 「단군세기」 “檀君氏之後。有解夫婁。解夫婁之後。有金蛙。金蛙之後。有朱蒙。溫祚。爲句麗，百濟之祖。皆本於檀君氏。”

33) 한영우, 「허목의 古學과 역사인식-‘東事’를 중심으로」 『한국학보』11집, (1985), pp.69~70.

34) 『숙종실록』 3년 1월 기사 “論其治則檀君淳龐之治，箕子八條之教，各千年.”

게 구별하던 존화적 문화의식을 탈피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확인된다.

② 기자조선

「기자세가」는 은나라 종실인 기자가 은왕 주(紂)의 폭정에도 끝까지 군신의 예를 지키고 주 무왕의 설득에도 조선으로 떠나 팔조의 규약을 세워 다스림과 교화의 나라를 1000여년 이은 것을 기록한 내용이다. 허목은 기자가 군신지간의 의리를 지킨 일과 조선에 와서 문물과 예의를 갖추고 팔조의 규약을 세워 풍속을 안정시킨 일을 전반부를 할애하여 적고 있다. 그는 숙종 3년에 올린 간략한 상소문에서도 “기자는 팔조로 가르쳐 1천년을 가고, 신라는 충후하게 다스려 인의의 나라로 불러 58대나 전했다.”³⁵⁾고 하면서 기자조선과 신라만이 교화와 덕치를 행한 나라로 인식하였다. 허목도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인식해 온 기자에 대한 존숭의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자세가」에서 주목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 먼저 기자와 주 무왕과의 관계에 대한 서술이다. 주 무왕이 기자를 감옥에서 풀어주자 기자는 홍범구주를 진언한 후에 조선으로 ‘거지(去之)’했다. 그 후에 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했으나 ‘불신(不臣)’했다고 한다. 즉 『사기』와 『서경』의 기록에 근거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기자가 조선에 자발적으로 왔고 조선왕으로서 행위한 것을 자주적 시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허목의 태도이다.³⁶⁾

또한 기자가 조선에 와서 이룬 치적으로 예의와 농잠, 직작, 경계 획정과 조법 실시, 팔조 규약 등을 들고 있다. 언급하는 기자의 치적은 이전의 사서에서 보이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을 엄격히 구분하던 화이적 세계관을 거부하고 있다. 물론 기자가 조선에 와서 조두(俎豆)를 처음 사용하여 예속을 통한 통치를 하여 문화가 한 단계 높아졌고 중국의 요, 순, 우 3대와 비교해 더 이상적인 사회가 되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³⁷⁾

하지만 기자가 조선으로 와서 처음 정착한 곳이 평양이었고 그곳에 단군조선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조선이라고 했다. 처음에는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아 그 뜻을 통역하여 소통하였다. 그리고 기자로부터 41세 기준까지 나라를 전승한 것이 928년이라고 했다.³⁸⁾

「단군세가」에서 단군조선은 상 무정 8년까지 1048년을 다스렸다고 했다. 그리고 북부여와 동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국통의 계승을 말했다. 「기자세가」를 보면 기자는 주 무왕 때에 단군 조선이 도읍했던 평양에 왔기 때문에 기자조선이라고 칭하면서 928년간 유지한 것으로 적고 있다. 중국 연표로 보면 상 무정 시기는 서기 전 13세기이다. 그리고 주 무왕 시기는 서기 전 11세기로 추정한다. 무려 200년 가까이 시기

35) 『숙종실록』 3년 1월 기사 “箕子八條之教，各千年。(중략) 新羅忠厚之治，稱仁義之邦，傳五十八世。”

36) 한영우, 위의 논문, p.72.

37) 한영우, 위의 논문, p.73.

38) 『동사』 「기자세가」 “至朝鮮。殷民從之者五千餘人。(중략) 武王因以封之而不臣也。都平壤。古有檀君朝鮮。謂之箕子朝鮮。始至言語不通。譯以通其志。(중략) 自箕子傳國四十一世。凡九百二十八年。”

적으로 차이가 있다.

『삼국유사』에서는 ‘고기(古記)’의 기록을 인용해 단군왕검께서 평양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을 건국한 이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겨 1,500년간 통치했다고 했다. 그 이후 주 무왕 즉위년에 기자를 조선에 봉했을 때 단군께서 도읍지를 장당경으로 옮겼고 단군께서 아사달로 돌아와 산신이 되기까지 그 수명이 1908세라고 했다. 먼저 당요의 즉위년을 기준으로 1500년 동안 평양과 백악산 아사달을 중심으로 단군이 조선을 통치했다면 서력 전 9세기까지 이어진 것이다. 더 나아가 단군의 수명으로 기록된 1908세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자가 주 무왕 시기에 조선에 와서 단군 조선을 이었다는 것을 성립할 수 없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기자의 치적으로 팔조금법을 소개하면서 그 문화적 업적을 높이 평가했는데, 일연의 『삼국유사』에서는 ‘기자수봉설’은 인정하면서 그 치적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유학자인 김부식과 승려인 일연의 세계관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기자에 대한 인식이 조선초기가 되면 단군은 역사상 처음으로 천명을 받아 왕이 되었고, 기자는 교화를 일으킨 문화 창시자의 상징으로 인식했다. 김부식과 일연의 역사 인식을 함께 수용하고 있다. 이런 기자에 대한 인식이 조선 중기에 와서 기자의 독립성과 정통성을 내세우기도 한다.³⁹⁾ 허목의 「기자세가」의 내용은 조선 중기 유학자들의 전통사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자세가」 말미에 기자의 교화로 인해 도둑이 없고, 부인들이 정숙했으며, 천여 년 간 나라가 이어진 것은 중국 삼대에도 없던 일⁴⁰⁾이라고 극찬한 것은 허목이 처음인데 기자조선에 대한 주체적 인식의 노력으로 보인다.

기자조선은 단군조선의 국가를 계승한 것이 아니다. 『삼국유사』가 인용한 ‘고기’를 통해 기자가 조선에 왔지만 단군 조선은 그 뒤를 이어 900여 년이나 더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허목의 「단군세가」에서도 밝혀듯이 단군조선은 해부루의 북부여, 금와의 동부여, 주몽의 고구려로 이어지고 있었다. 단군조선을 이은 부여사를 정확히 밝히면 기자조선은 삼조선의 하나로 인식하기보다 단군조선의 서쪽 경계에 머물던 부용국의 하나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③ 위만조선

허목은 「위만세가」를 지으면서 「단군세가」, 「기자세가」와 다르게 연나라 사람 위만이 조선왕 준을 내쫓고 조선을 찬탈하는 과정과 2대인 손자 우거가 한 무제 원봉 3년⁴¹⁾에 살해당해 항복한 사실만 간략하게 기술했다. 허목은 기전체 형식으로 『동사』

39) 한영우, 「고려~조선전기의 기자인식」 『한국문화』3, pp.29~42.

40) 『동사』 「기자세가」 “東國被箕子之化。門不夜扃。婦人貞信不淫。治教長久。國祚不絕千有餘年。此三代之所未有也。”

41) 원봉은 중국 전한 무제가 사용한 여섯 번째 연호로 서기전 110년에서 서기전 105년까지 사용했다. 원봉 3년은 서기전 108년이다.

를 저술하면서 「위만세가」는 분량도 짧지만 30%를 자신의 사론(史論)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전의 사서들에서도 위만조선을 폄하해서 보았는데 그것은 위만을 찬탈자로 보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위만이 “처음에는 작고 약한 처지로 조선에 신하되기를 구걸하더니 갑자기 강성해지자 속임수로 준왕을 내쫓고 나라를 빼앗아 병합하니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찬탈자로서 본 것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위만조선이 2세를 전하고 망한 것은 “갑자기 얻은 자는 갑자기 망하는 것이 천도”⁴²⁾라는 인식이다. 허목의 입장에서 위만조선을 비판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군사력과 재물로써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친 부분이었다.

허목의 위만조선에 대한 역사관은 당시의 시대상황에 대한 그의 인식과 맞물려 있다. 조선 중기인 효종에서 숙종 초의 정치는 청나라에 대한 복벌 정책이었다. 그의 정치사상은 왕권강화와 계급질서를 바탕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현실주의였다. 허목이 효종 때부터 숙종 초까지 상소를 통해 비판한 것은 군문둔전과 축성, 병고제조, 도체잘사 제도 등이었다. 그는 이를 묶어 ‘병사(兵事)’라고 불렀다. 그가 적극적으로 반대한 이유는 당시 조선의 국력이 약할 뿐 아니라 지리적 여건이 공격에 불리하다는 것과 복벌 운동이 국가 기강을 무너뜨려 집권층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⁴³⁾ 그가 10년 전에 저술한 『경설』과 『동사』를 숙종에게 올린 것도 그의 현실주의적 정치사상과 역사관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위만조선에 대한 허목의 인식은 단순한 찬탈자를 넘어 군사력과 재물로써 영토 확장을 꾀한 역사였던 것이다. 위만조선은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계승성을 띤 국가라기보다 단군조선의 부용국이었던 기자조선의 정권을 탈취한 위만정권으로 봐야 할 것이다.

허목의 『동사』를 중심으로 고대사의 가장 중요한 시대인 고조선의 ‘삼조선설’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다. 허목은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인정하는 듯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위만조선은 단군과 기자의 뒤를 이은 정통 조선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허목은 도가적 역사관을 보이기도 하지만 뒤늦게 정계에 진출해 남인의 대표적 관료로서 유가적 역사관인 기자조선을 주목한다. 물론 기자조선의 독립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오히려 이승휴의 『제왕운기』 역사관을 바탕으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을 이원적 계통론의 출발로 인식했다. 단군조선을 이어 북부여와 동부여, 고구려와 백제로 이어지는 역사계통론과 기자조선에서 마한과 신라로 이어지는 역사계통론을 함께 보면서 종합 수렴하고자 한 모습이 눈에 띈다.

3. 『동사』의 이원적 계통론과 의미

조선중기 전통 사학사에서 중요한 것은 주자의 강목체 형식의 서술이 등장하는 것

42) 『동사』 「위만세가」 “天道暴得者暴亡。”

43) 한영우, 「허목의 고학과 역사인식 -동사를 중심으로-」 『한국학보』40, (1985), pp.55~60.

과 때를 같이 해 정통론이 등장하는 것이다. 정통론은 각 국가의 역사를 바르게 평가해 대의명분에 충실한 계통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강목체와 불가분의 관계이다.⁴⁴⁾ 『동사』도 형식상으로는 기전체 서술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신라세가」와 「고구려세가」, 「백제세가」, 그리고 「가락열전」에는 허목의 찬평이 실려 있다. 그리고 「기자세가」와 「위만세가」에도 허목의 사론이 실려 있다. 즉 허목은 『동사』 저술에서 외형적으로는 기전체 형식을 취했지만 내용에 있어서 강목체 형식을 원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사』의 형식과 내용을 바탕으로 허목의 국가 계통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사』의 계통론은 이원론적 체계이다. 단군조선으로부터 시작해 북부여와 동부여, 고구려, 백제로 이어지는 혈통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북방계통론과 기자조선에서 마한과 신라로 이어지는 문화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남방계통론이다. 단군조선의 ‘순방지치(淳龐之治)’와 기자조선의 ‘팔조지교(八條之教)’를 함께 강조하여 이원적 인식체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⁴⁵⁾

1) 북방계통론

허목이 인식한 북방계통론은 혈통적 계통론이다. 신시·단군을 시작으로 북부여와 동부여, 고구려와 백제로 이어지는 북방계통론은 혈통적으로 계승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단군씨가 부루를 낳았다. (중략) 부루가 즉위하여 북부여를 세웠다. 부루가 곤연에 기도하여 금와를 얻었다. (중략) 부루가 죽고 금와가 뒤를 이어 동부여를 세웠다. (중략) 금와가 우발수의 여자를 사랑하여 주몽을 낳았다. 주몽의 작은 아들을 온조라고 한다. 단군씨의 후손에 해부루가 있고, 해부루의 후손에 금와가 있고, 금와의 후손에 주몽과 온조가 있어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가 되었으니, 모두 단군씨에게 뿌리를 둔 것이다.⁴⁶⁾

「단군세가」에서 북방계통론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단군조선에서 북부여, 동부여로 계승되는 혈통적 과정과 고구려, 백제로 계승되는 과정이 기록되었다. 후반부에는 ‘부여열전’ 형식으로 부여의 지리적 위치와 영토, 그리고 문화적 특성과 법제를 정리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숙신씨(읍루)를 단군조선의 부용국으로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부여·고구려·백제의 시조를 단군의 후예로 보는 시각은 고려 말의 『제왕운기』와 조선 전기의 『응제시주』에서만 보일 뿐이다.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사서는 이를 인정하

44) 이만열, 「17·8세기의 사서와 고대사인식」 『한국사연구』10, (1976), p.111.

45) 박경철, 「우리 전통사학의 고조선사 인식-그 지성사적 접근을 위한 시론-」, (1999), p.36.

46) 『동사』 「단군세가」 “檀君氏生夫妻。(중략) 夫妻立爲北扶餘。夫妻禱於鯤淵。得金蛙。(중략) 夫妻卒。金蛙嗣。徙迦葉原。爲東扶餘。(중략) 金蛙悅優淳水之女。優淳。澤名。在泰伯山南。感日影照身。生朱蒙。朱蒙少子曰溫祚。檀君氏之後。有解夫妻。解夫妻之後。有金蛙。金蛙之後。有朱蒙。溫祚。爲句麗。百濟之祖。皆本於檀君氏。”

지 않았다. 『동사』에서 단군의 혈통을 강조한 것은 특이한 것이며, 「고기」류의 사서를 참고한 데서 얻어진 결과로 보인다.⁴⁷⁾

「고구려세가」는 상, 하로 구성되었는데 상 첫 문단에서 부여국 군왕이 우발수의 여자를 얻어 주몽을 낳았다고 묘사했다. 특이한 점은 우발수의 여자가 ‘해 그림자’에 감응하여 임신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도덕적 합리주의를 강조했던 유학자들은 황탄무계한 내용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던 시기였다. 그러나 허목은 「가락열전」 말미에 찬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상고 시대에 웅씨(熊氏) 부인은 큰 번개에 감응하여 현원을 낳았고, 설(契)은 간적이 현조가 떨어뜨린 알을 삼키고 낳았으며, 후직(后稷)은 강원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고 낳았으니, 예로부터 생민(生民)의 시조는 그 탄생이 참으로 그러하다.*⁴⁸⁾

전조의 김부식을 필두로 하는 유교적 전통사학은 신화와 설화를 역사 기술에서 배척하였다. 그러나 허목은 중국 역사 시조들의 탄생과정과 비교하면서 주몽과 혁거세, 그리고 김수로의 탄생과정이 신비로운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로부터 건국시조들의 탄생 설화는 본래 그러하다는 인식이다. 허목의 건국시조들의 탄생설화에 대한 이런 인식은 일연의 『삼국유사』 서문의 기록과 통한다.

건국시조들의 탄생설화를 인정하는 허목은 고구려 멸망설에 관한 도참설도 인용했다. 「고구려세가」에 보면 “구백에 못 미쳐 팔십 대장이 있어 멸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고씨가 나라를 소유한 지 거의 800년이 되었고, 이적의 나이가 80세였다.”⁴⁹⁾라는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고구려세가」에서 특기할 내용은 찬평에서 ‘고구려 국경이 중국 땅 기주에 접해 있는데 사실상 기자의 나라로 대국의 유풍이 있다’고 한 부분이다.⁵⁰⁾ 허목은 고구려가 혈통적으로는 단군의 후예지만 문화적으로는 기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이다.

「백제세가」를 보면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의 두 아들인 비류와 온조의 건국 과정이 묘사되어 있다. 세가의 앞부분에 백제는 “고구려와 똑같이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부여를 씨를 삼고, 시조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⁵¹⁾고 하였다. 백제도 부여로부터 출자한 나라로 인식한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7대 고이왕대에 관리 제도를 두었는데 그들의 복식을 묘사한 부분이다. 임금의 복장이 소매가 넓은 자색 도포이고, 좌평6관과 5솔의 의복도 자색이란 것이다. 자색은 천자만이 쓸 수 있는 색이었기 때문에 백제도 천자의식이 있는 나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북방계통론의 나라인 백제에 대해서는 온조가 강력한 전투력으로 나라를 세워 오로지 부국강병에만 힘썼기 때문에 단지 강포한 나라일 뿐 훌륭한 풍속이 없다고 평가했

47) 한영우,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p.57.

48) 『동사』 「가락열전」 “上古有熊氏婦。感大電生軒轅。契之生。簡狄吞玄鳥墮卵。后稷之生。姜嫄踐巨人迹。自古生民之祖。其生固然。”

49) 『동사』 「고구려세가」 “有圖讖曰。不及九百。當有八十大將。滅之。高氏有國將八百年。勳年八十。”

50) 『동사』 「고구려세가」 “然其壤界接於禹貢冀州中國之地。而實箕子之國。其民質實。有大國之遺風。”

51) 『동사』 「백제세가」 “與句麗同出扶餘。以扶餘爲氏。立始祖東明王祠。”

다. 전쟁을 벌이다 죽은 왕이 4명이라고 특기하였다. 허목은 당시 서인들의 북벌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숙종에게 「경설」과 『동사』를 진상한 것도 위만조선과 백제를 예시하여 북벌론을 경계한 것이다.

2) 남방계통론

허목의 남방계통론은 기사로부터 이어진 문화론적 계통론이다. 그가 북방계통론에서 유교적 전통사학자들이 배척했던 설화와 도참설을 적극 인용했지만 한편으로 기사로부터 문화적 혜택을 입어 1000년의 역사를 이은 기자조선과 신라를 강조하였다.

허목은 「기자세가」에서 기자가 주 무왕으로부터 조선왕으로 봉함을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조선에 왔다는 것[箕子乃去之]을 강조했다. 기자가 은나라 출신이지만 기자조선은 중국 역사와 무관하게 출발한 독립적인 국가로 인식한 것이다. 「기자세가」에서는 주로 농업과 예악, 그리고 조세와 팔조의 규약 등을 강조하며 교화지주로 그리고 있다. 찬평에서도 우리나라가 기자의 교화를 입어 도둑이 없고, 부부간의 신의가 지켜져 다스림과 교화가 1000여년 이어졌고 중국 요·순·우 삼대에도 없던 이상사회였다고 평했다.

「기자세가」 후반에 준왕이 위만에게 패하여 남쪽으로 달아나 금마에 이르러 마한 왕이 되었고 50개의 소국을 통치하였다⁵²⁾고 기록했다. 마한은 신라 사람들이 서한이라고 불렀는데 마한 왕 준이 50여개의 소국을 속국으로 삼았다.⁵³⁾ 그 중에는 진한도 포함되었다. 진한열전에 보면 진한은 처음에 제대로 자립하지 못해 마한에서 임금을 세워 부용국으로 삼았다⁵⁴⁾고 하였다.

결국 신라는 본래 진한지역에서 일어난 나라로 기자조선의 계통성을 이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마한에서 왕을 임명하던 나라인 진한에서 신라의 혁거세가 생민지조로서 신이하게 탄생하였다. 북방계통론과 다르게 남방계통론은 혈통적 계승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기자가 교화지주로 묘사되고 「신라세가」 찬평에서 중국과 문화적 교류가 미치지 않은 방외의 별국인 신라가 혁거세, 탈해, 알지가 성씨를 번갈아 왕이 된 것은 삼대시절에도 보지 못한 것이라고 극찬하였다. 덕을 바탕으로 다스려 천년을 유지한 인의의 나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허목은 신라를 기자조선을 계승한 인의의 나라로서 숙종에게 자신의 정치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한 사례로 보았을 뿐이다. 하지만 신라의 국가 계승성도 단군조선으로부터 이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 『동사』 「기자세가」 “王準戰敗南奔。滿遂據朝鮮。自箕子傳國四十一世。凡九百二十八年。王準失國。涉海至金馬。自稱馬韓王。統小國五十。”

53) 『동사』 「마한」 “馬韓。羅人謂之西韓。(중략) 馬韓王準。略屬傍小國。如爰裏，大小石索諸夷五十餘國。”

54) 『동사』 「진한」 “辰韓。(중략) 不能自立。馬韓置君而附於馬韓。”

이에 앞서 조선(朝鮮)의 유민이 산골짜기 사이에 나누어 살면서 6촌(六村)을 이루고 있었는데, 첫째는 알천(閼川) 양산촌(楊山村), 둘째는 돌산(突山) 고허촌(高墟村), 셋째는 취산(觜山) 진지촌(珍支村) 혹은 간진촌(干珍村)이라고도 한다, 넷째는 무산(茂山) 대수촌(大樹村), 다섯째는 금산(金山) 가리촌(加利村), 여섯째는 명활산(明活山) 고야촌(高耶村)으로, 이들이 바로 진한(辰韓)의 6부이다.⁵⁵⁾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신라의 전신이었던 진한은 조선의 유민들이었다는 기록을 볼 때 단군조선을 계승한 국가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한 ‘조선’이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중의 어디인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 아래 기록을 보자.

임금께서 말하길 “경의 말이 옳다. 주서가 나가서 신라, 백제에서 단군을 제향하는 달을 알아오라.” 하셨다. 천신이 명을 받고 돌아와 아뢰어 말하기를 “일 년에 두 번이고 2월과 8월에 제향한다.”고 말하였다.⁵⁶⁾

영조47년의 승정원일기를 보면 신라는 백제와 더불어 매년 2월과 8월에 ‘단군’에게 제향을 올렸다. 만일 신라가 단군조선의 국가를 계승하지 않고 기자조선의 계승의식을 가졌다면 위와 같은 의례를 국가적으로 두 차례 씩 하지 않았을 것이다. 위 기록들을 종합해서 볼 때 신라도 분명히 단군조선을 계승한 국가로 볼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동사』에서 ‘가락’과 ‘대가야’를 신라의 부용국으로 열전에서 다루고 있는데 「신라세가」 3대 유리 이사금 때 김수로의 가락을 부용국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여기서 언급한 5가야의 이름 중에서 ‘아라가야(阿羅伽倻)’와 ‘가야(伽倻)’가 「가락열전」에서는 ‘아나가야(阿那伽倻)’와 ‘벽진가야(碧珍伽倻)’로 다르다는 것이다. 허목이 가야에 관한 서로 다른 사서를 봤을 가능성이 있다.

3) 말갈열전과 흑치열전

『동사』의 편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전조인 고려의 역사를 기술하지 않으면서 발해의 역사를 기술한 부분이다. 허목은 발해를 「말갈열전」으로 편목했다. 말갈은 고구려의 별종으로 보면서 부여, 옥저, 변한, 조선의 땅을 모두 차지하여 국호를 ‘진(震)’으로 삼았다고 했다. 개원1년(713)에 발해군왕으로 책봉되었다고 한 것은 통일신라와의 남북조시대를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구려의 혈통적 계승성을 인정하면서 주체적 국호인 ‘진(震)’을 사용한 것이 흥미롭다.

허목은 『동사』에서 「외기」 「흑치열전」을 따로 두어 일본을 조선의 부용국으로 인식

55) 『삼국사기』 「신라본기」 혁거세거서간 ; 先是, 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 爲六村, 一曰閼川 楊山村, 二曰突山 高墟村, 三曰觜山 珍支村 或云干珍村., 四曰茂山 大樹村, 五曰金山 加利村, 六曰明活山 高耶村, 是爲辰韓六部.

56) 『승정원일기』 영조47년 10월기사 ; 上曰, 卿言是矣. 注書出去知入, 新羅·百濟檀君祭享之月. 賤臣承命出來還奏曰, 一年兩次, 而二月·八月祭享云矣.

했다. 불과 80여 년 전에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 전체가 큰 병란을 겪은 후인데 허목은 일본을 고대 역사에서 제후국으로 생각한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일본지왜(日本之倭)’라는 기록으로 ‘일본’과 ‘왜’를 별개의 정치체로 인식한 듯한 표현이다. 그리고 ‘일본지왜’가 유교 서적을 구하며 제사 지내며 예를 갖추는 풍속을 묻는 것은 만이족의 성대한 일이라고 기대감을 비치고 있다.

IV. 맺음말

양란(兩亂)을 겪은 조선중기 사회는 지배층들이 문화적 역량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생각했던 일본과 청의 물리력에 압도되면서 ‘존명사대주의’를 더욱 주장하면서 ‘소중화 자존의식’으로 응결되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17세기 중반부터 조선 사회의 관료와 유학자들은 국가 왕조체제의 위기의식 속에서 ‘국가재조론(國家再造論)’이 대두되었다.

이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조선 중기 유교적 전통사학자들의 정통론과 상고사 인식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중의 대표적 인물이 미수 허목이었다. 조선 중기의 유계는 『여사제강』에서 상고사를 아예 부정하면서 고려 단대사만 저술하고, 흥여하는 『동국통감제강』에서 기자조선을 한국사의 정통의 머리로 인식하면서 단군조선을 아예 제외시켰다.

그런데 허목은 『동사』에서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조선의 삼조선과 신라, 고구려, 백제를 「세가」로 배치하고 부여와 숙신씨, 삼한(마한·진한·변한)과 가락, 대가야, 예맥, 말갈(발해), 탁라 등 10국을 부용국으로 인식해 「열전」에 배치했다. 당시 유교적 전통사학의 서술방법인 강목체를 탈피해 왕권중심의 기강을 잡기 위해 기전체 서술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사를 세가와 열전으로 구분해 독자적인 천하 인식을 강조하면서 방외의 별국으로 인식했다.

또한 그의 국가 계승성은 북방계통론과 남방계통론의 이원적 계통론이다. 북방계통론은 단군조선을 이어 북부여와 동부여, 고구려와 백제로 이어지는 혈통적 계승론이다. 남방계통론은 기자조선을 중심으로 마한과 신라로 이어지는 것으로 문화적 계통론이다. 허목의 삼조선 인식은 유교적 전통사학론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기자조선은 단군조선의 계통을 이은 것이 될 수 없음을 살펴봤다. 연대기적인 기술에서도 기자조선은 단군조선을 이을 수 없었다. 북부여와 동부여 등 부여사를 회복하면 기자조선은 단군조선의 서쪽 변방 부용국의 역사로 볼 수 있다. 신라도 기자조선이 아닌 단군조선을 계승한 국가란 것을 기존 사서의 기록들로 살펴봤다.

17세기 허목의 『동사』는 전통사학사의 위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양란 이후 조선 중기의 경직된 유가적 전통사학이 더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도가적 전통사학 부활의 전기점이 되었다. 그 흐름은 18세기 이종휘의 『동사』와 대일항쟁기 민족사학 성립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살펴봤다.

【참고문헌】

『동사』 『속종실록』 『승정원일기』 『삼국유사』 『삼국사기』 『제왕운기』

[단행본]

이만열, 『한국의 역사인식』 下, (창작과 비평사), (1976)
한영우, 『조선전기사학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한영우,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1989)

[논문류]

박경철, 「우리 전통사학의 고조선사 인식-그 지성사적 접근을 위한 일시론-」 『사학연구』58·59, (1999)
박병섭·박병훈, 「단군조선과 삼조선설」 『단군학연구』 제17호, (2007)
박해현, 「허목의 ‘동사’ 저술과 그 동기」 『한국사상과 문화』제21집, (2003)
석승징, 「미수 허목의 역사 인식과 민족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10)
신용하, 「기자조선설의 사회학적 검증과 범금8조의 실제」 『고조선단군학』29집, (2013)
신형식, 「한국고대사연구의 정착과정」 『백산학보』98호, (2014)
이동하, 「미수 허목의 사상과 예술사 연구」 대전대 석사학위논문, (2012)
이만열, 「17·8세기의 사서와 고대사인식」 『한국사연구』10, (1976)
이영춘, 「16세기 사림파와 김저의 정치활동」 『한국사상과 문화』12, (2001)
이우성, 「이조후기 근기학파에 있어서의 정통론의 전개」 『역사학보』31집, (1966)
정옥자, 「미수 허목연구-그의 문학관을 중심으로」 『한국사론』5집, (1979)
조원진, 「단군과 기자 - 고조선사의 체계에 대한 고찰」 『고조선단군학』31호, (2014),
한영우, 「허목의 古學과 역사 인식-東事를 중심으로」 『한국학보』40, (1985)
한영우, 「15세기 사서의 역사인식에 관한 연구」 『성곡논총』9, (1978)
한영우, 「17세기의 반존화적 도가사학의 성장-북애의 규원사화에 대하여」 『한국학보』1, (1975)
한영우, 「고려~조선전기의 기자인식」 『한국문화』3, (1982)
홍을표, 「기자조선에 대한 문헌적 분석」 『강원사학』 24·25 합집, (2010)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